

http://dx.doi.org/10.17703/JCCT.2022.8.6.215

JCCT 2022-11-26

## NFT 예술 현황 분석과 국내 미술작품 활용방안 연구

###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NFT Art and Methodology on Utilizing Domestic Artworks

이안\*

Lee, Ahn\*

**요약** 최근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등의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NFT 예술의 기본개념을 정리하고 국내외 NFT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예술시장에서의 NFT 예술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활용방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외 시장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그 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암호화폐 및 NFT 기술 등 다양한 메타버스로의 정보 이전 사례를 확인하여 향후 국내 예술의 방향성을 위한 발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NFT 예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서울 광진구 인근의 아트페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NFT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NFT 예술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NFT 작품 및 NFT 예술 산업 연구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주요어** : NFT 예술, 메타버스, 블록체인, 대체 불가능한 토큰, 암호화폐, 스마트 컨트랙트

**Abstract** This study summarizes the basic concepts of NFT art and analyzes trends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NFT market to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art form to suggest various ways to utilize the art in near future when social interests in technologies such as metaverse, block chain, and NFT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In addition, by examining the rapid development and process of blockchain technology in overseas markets, and confirming cases of information transfer to various metaverses such as cryptocurrency and NFT technology, the aim is to present a foothold for the future direction of national arts in general. To this end, in order to analyze consumers' perceptions and preferences, and to draw conclusions about current NFT arts at home and abroad, a survey was conducted on NFT awareness among participants of an art fair in Gwangjin-gu, Seoul.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come a cornerstone of research on NFT works and NFT art industry, which is becoming a global issue.

**Key words** : NFT art, Metaverse, Blockchain, Non-fungible Token(NFT), Cryptocurrency, Smart Contract

#### 1. 서론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조어가 최근 지속해서 언론 및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거래량은 증가하고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도서와 NFT사용 가이드 등 관련 내용 출판물이

\*준회원,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PgDip Design for Visual Communication 석사과정(제1저자)  
접수일: 2022년 9월 28일, 수정완료일: 2022년 10월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1일

Received: September 28, 2022 / Revised: October 25, 2022  
Accepted: November 1, 2022  
\*Corresponding Author: ahnlee0218@gmail.com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PgDip Design for Visual Communication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뉴스도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다. 그 이유는 NFT가 가진 특성 및 가치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NFT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암호화폐를 응용하여 데이터의 원본성(originality)을 증명해 구별이 불가능한 정보에 고유성 및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을 일컫는다. 이는 단순한 투자가치를 넘어서 기존의 예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NFT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NFT 예술에 관련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NFT정의와 용어정리, NFT의 국내외 시장 현황을 고찰하고, NFT의 인지도 및 가치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자 한다. 특히 본 연구가 NFT 예술을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로써 다양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NFT의 정의

NFT란 Non-Fungible Token(이하 NFT)의 약자로 한글로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 번역된다. 특정한 한 유닛의 데이터를 지닌다는 성질 때문에 토큰이라 일컫고 이러한 유닛의 데이터에 오직 그 소유자만이 접근하거나 이양할 수 있기에 대체 불가능하다고 한다. 다시 말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미술, 음악, 서적, 부동산 등 희소성을 지닌 물리적이거나 디지털화되어있는 모든 유형의 고유자산을 기록, 확인 및 추적하여 나타내는데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1]. 일종의 ‘디지털 증서’의 역할도 하는 NFT는 비트코인과도 같은 가상화폐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술로 정보의 보증을 받으며[2], 이렇게 디지털 지갑과 온라인 네트워크로 이용이 가능한 이점은 지리적 한계를 넘어선 거래를 가능케 한다[3].

### 2. NFT 관련 용어 정의

최근 NFT가 미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며 한국의 언론매체에서도 NFT라는 단어가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NFT의 명확한 정의와 개념을 이해하기에는 대중매체에의 설명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NFT와 관련된 대표적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1)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NFT에 대한 이해를 위해선 우선 스마트 컨트랙트가 무엇인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소개는 지난 1997년 Nick Szabo에 의해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Nick Szabo는 담보, 채권, 재산권 등 다양한 종류의 계약 조항이 우리가 다루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타인의 계약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나아가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주장했다[4]. 또한, 그는 물리적인 한계에서 벗어나 모든 계약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진보된 보안 유지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A가 진실이라면 B가 이행된다”라는 소프트웨어의 자동화를 기반으로 제기되었다. 예로 지문이나 홍채인식을 통한 보안법은 지문이 일치한다는 조건만 맞으면 보안이 풀리게 된다. A(지문 일치)라는 진실로 B(보안 해제)가 이행된 것이다. 이러한 계약이 현실에서 조금 더 복잡한 계약인 담보나 채권 등을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이다.

#### 2) 블록체인(Blockchain)

블록체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에 의해 2008년, 비트코인 백서를 통해 세상에 등장했다[5]. 이 백서에서 소개된 블록체인은 다수의 거래내용이 담긴 ‘블록’들이 체인처럼 서로 엉켜있는 형태로 개개의 노드(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의해 네트워크에 기록되는 구조를 띠고 있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입증하고 나아가 은행이나 정부와도 같은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난 자분구조를 갖춘 탈중앙화를 가능케 했다. 또한, 거래내용이 공유되는 만큼 정보의 투명성이 높았고, 식별자는 16진수로 이루어진 지갑 주소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익명성이 또한 보장되었다[6].

#### 3) 암호화폐(Cryptocurrency)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로 실현된 것이 바로 암호화폐이다. 암호화폐는 채굴(mining)이라는 과정을 거쳐 생성되는데 생산자는 암호화된 계좌와 지갑을 만들어 암호화폐를 저장하고 거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은 개개의 노드가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증명(proof-of-work)을 통한 탈중앙화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작업의 보상으로 코인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채굴 참여자들을 확보하며 신용을 높여왔다[7].

이렇게 생성된 코인은 실질적인 금전적 가치를 지니며 익명성의 보장 또한 확보해 금융시장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8]. 한편 암호화폐는 세계 통화의 초당 거래율에 비교해 그 양이 매우 적은 블록의 크기가 아직은 너무 커 비효율적이기에 크기를 줄이고 거래율을 높이지 않는 한 세계 통화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9]. 그림1은 마스터카드 및 비자카드와 비교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초당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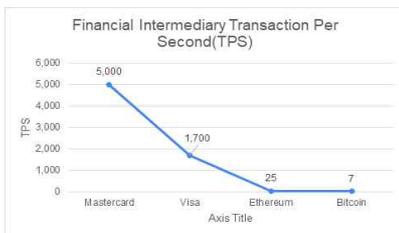


그림 1. 금융중개사별 초당 거래율  
 Figure 1. Financial intermediary TPS

#### 4) NFT 예술

NFT 또한 일종의 암호화폐이다. 다만, NFT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처럼 한 유닛의 코인값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연결된 데이터에 따라 각각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개별의 작품들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소유권이나 재산권이 이동되거나 재분배되도록 한다. 나아가 이를 블록체인이 기록하여 고유성을 지지해줌으로써 디지털 자산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NFT는 블록체인의 암호화와 고유성 증명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디지털화된 코인을 통해 거래된다[10].

이러한 신기술의 차용으로 광고업계와 예술시장은 말 빠르게 작품의 디지털화에 힘썼다. 이미 전통적인 붓에서 벗어나 디지털화를 끝낸 신세대의 예술가들에겐 이미 완성된 기존의 작품을 NFT를 통해 고유화하여 업로드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이렇게 NFT 예술이 시작되었다. 최초의 NFT 작품인 Kevin McCoy의 'Quantum'을[11] 시작으로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며 NFT 예술시장은 소더비(Sotheby's)와도 같은 대형 경매 회사의 참여를 끌어내기도 하였다. 그림 2는 소더비의 NFT 작품 경매장면이다.

### III. NFT 예술의 현황

#### 1. NFT 예술의 국외현황

##### 1) NFT 예술의 시작

최초의 NFT는 2011년 네임코인(Namecoin) 블록체인을 암호화된 토큰에 연결시켜보자는 bitDNS 프로젝트를 통해 세상에 소개되었다. 암호화폐를 bit 도메인에 연결해보자는 시도는 빠르게 자생하는 메타버스 시장의 통화로 암호화폐가 자리매김하게 해주었다. 이후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보여준 'Colored Coins'를 통해 메타데이터를 비트코인 거래내용과 연결함으로써 블록체인이 이러한 거래 정보를 담아내고 기록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12]. 이렇게 탄생한 NFT 기술을 기반으로 2014년 Kevin McCoy가 최초의 NFT 예술인 'Quantum'을 민팅(Minting) 하며 NFT 예술의 시작을 알렸다[13]. 그림 3은 작품 Quantum의 스틸사진이다.



그림 2. 소더비의 NFT 작품 경매장면  
 Figure 2. NFT art auctioning at Sotheb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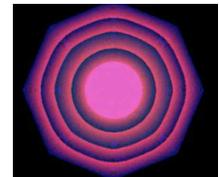


그림 3. Kevin McCoy의 'Quantum' 스틸 샷  
 Figure 3. A still from 'Quantum' by Kevin McCoy

##### 2) 페페 밈의 등장

Quantum의 등장을 기점으로 NFT는 각종 예술품, 수집품, 게임 아이템 등 다양한 매체와 장르를 통해 전파되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키워나갔다. 이러한 현상이 이끌어낸 주역이 바로 슬픈 개구리 페페 밈 [그림 4]이다. The Counterparty(Bitcoin 2.0), Spells of Genesis 등의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 설립되던 2016년도에 페페 밈이 Counterparty에서 흥행하기 시작했고 NFT 시장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그림 4. NFT 판매를 위해 만들어진 슬픈 개구리 페페 밈  
 Figure 4. Pepe the sad frog meme created for NFT sales

이러한 페페의 성공은 2017년 Peperium이란 이름의 개별적인 토큰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정도의 열풍을 선도

했다. Peperium은 완전한 탈중앙화를 목표로 한 밌시장이자 카드 트레이딩 사이트로, 이더리움과 IPFS의 레버리지를 통해 새로운 밌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Rare'라는 토큰을 발행하기도 하며 NFT 거래에 편의를 더하고 개별적인 토큰 발행으로 자본의 유동적인 흐름을 겨냥했다[14].

3) 크립토펙스(CryptoPunks)와 NFT 예술의 성장

페페의 등장 이후에도 다양한 NFT 예술품들이 나타났다. 그중 단연 페페의 뒤를 이은 후발주자는 크립토키티고양이(Crypto Kitties)를 내세운 크립토펙스(Crypto Punks)였다. 크립토키티고양이를 시작으로 John Watkinson과 Matt Hall이 런칭한 Cryptopunks에는 10,000개 이상의 특별하고 고유적인 작품들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생겨났다. 나아가 시장성을 확인한 하이엔드 패션브랜드와 스포츠계에서도 NFT를 주체로 한 작품들을 팔기 시작했다. 실제로 구찌는 메타버스 시장을 노린 가상세계에서의 디자인을 기획하며 10KTF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15] MBA에서는 르브론 제임스의 비디오 클립이 \$200,000 USD에 거래되기도 했다[16]. 그림 5는 크립토키티고양이와 구찌의 NFT 작품 사진이다.



그림 5. 크립토펙스에서 제작된 크립토키티고양이[왼], 구찌와 수페레어의 NFT 콜라보 작품[오]  
Figure 5. Cat images designed on Cryptopunks[L], Collaboration with SuperRare and Gucci[R]

이렇게 NFT 시장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그림 6은 다양한 장르의 NFT 거래량 및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나타낸 도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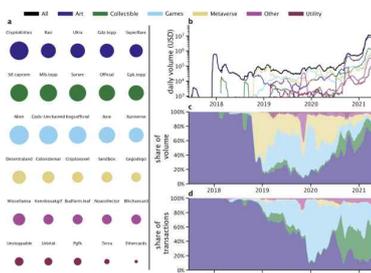


그림 6. NFT 분배도에 대한 도표[17]  
Figure 6. Description of the NFT landscape[17]

2014년 시작해 가치가 거의 없던 NFT 시장의 규모는 2021년 약 \$11.3 billion(USD) 원으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약 \$231 billion(USD)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Verified Market Research(VMR)는 밝혔다[18].

4) 순수예술의 NFT 예술시장으로의 진입

NFT 예술의 시장성이 확장되자 미술계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데미안 허스트나 뱅크시와도 같은 현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NFT 작품을 만들고 실물 작품들을 태워버린 것이다. 뱅크시는 크리스티에서 자신의 작품인 "The print Morons"를 태우는 영상을 공개하며 오로지 NFT를 통해서만 작품을 거래할 수 있게 했다. 이 작품은 약 \$6,000,000 USD에 판매되었다[19]. 그림 7는 뱅크시가 작품을 태우는 장면을 송출한 유튜브 방송의 스틸사진이다.



그림 7. 뱅크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  
Figure 7. Banksy burning his work live on Youtube



그림 8. 데미안 허스트 NFT 작품  
Figure 8. Hurst holding a piece that's sold on NFT

나아가 데미안 허스트는 2021년 수천의 작품을 각각 \$2,000 USD에 NFT로 올리며 화제가 되었다. 구매자들은 2022년 여름에 이 작품을 NFT로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실물로 보유할 것인지 고를 수 있으며, NFT로 선택받은 작품들의 실물은 전량 폐기된다는 조건이었다. 실제로 10,000점이 팔렸고 이 중 5,149점이 실물로 소유되었고 4,851점이 NFT로 선택되며 실물은 폐기되었다. 그림 8은 데미안 허스트와 NFT 작품의 사진이다.

이렇듯 소더비(Sotheby's)와 크리스티(Christie's) 같은 권위 있는 경매장들이 NFT 작품을 취급하기 시작했고 저명한 화가들이 이에 응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안정성을 옹호하며 앞으로의 기술발전이 이러한 현상을 더욱 견고히 할 것이며 중간관리자의 부재와 투명한 장부의 흐름을 통한 깨끗한 자본의 이동이 총용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20], NFT의 내용물의 완전한 검열이 불가능하기에 사용자

들이 위협에 온전히 노출되어있다는 사실과 저작권에 관한 판단이 매우 불분명하다는 점 때문에 저작권 위반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뽑기도 한다[21].

## 2. NFT 예술의 국내현황

### 1) COVID-19와 NFT 재테크

2013년 유영석과 김진화에 의해 대한민국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빗(Korbit)이 한국비트코인거래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22]. 이후 지난 2020년 약 \$9,400,000 USD 정도였던 세계 NFT 거래대금이 2022년 약 \$12 B USD로 262배의 성장을 보이며 정점을 찍었다. 그림 9는 이러한 성장을 보여주는 도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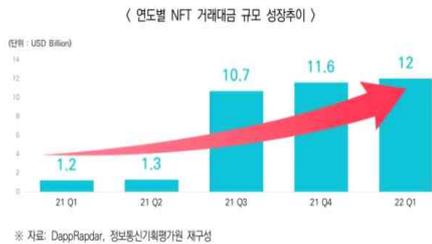


그림 9. 분기별 NFT 성장 추이  
 Figure 9. Quarterly NFT transaction volume growth trend

이러한 급성장세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해설이 존재하나 코로나 19의 타격에 의한 다양한 사회적 양상과 새로운 질서의 출현을 하나의 합리적인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비대면 수업 등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체제가 자리 잡으며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에 적응하는 과정 중 찾아온 미술시장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NFT 시장이 급성장했다고 보는 시점이 존재한다[23]. 그림 10은 2020년도 늘어난 주식투자자 비율을 보여주는 도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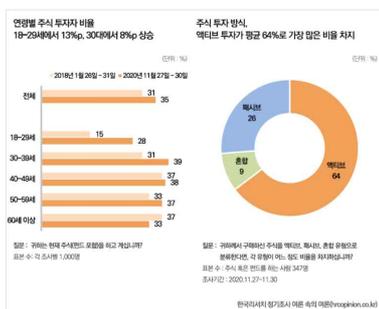


그림 10. 2018년 대비 2020년도 주식투자자 비율표  
 Figure 10. Ratio table of stock investors in 2020 compared to 2018

이러한 시장의 흐름 아래 투자의 목적과 예술계의 생존을 위한 대응이 맞물려 세계의 가상화폐 시장은 큰 성장을 이루었고 국내의 NFT 투자에 대한 관심 또한 급성장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NFT 투자와 관련된 서적이 2배 가까운 판매량을 보인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24]. 미술품이나 음악 등의 작품이 NFT로 출시되고 높은 가격에 판매되며 대중의 관심이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2021년 7월 말 이후 NFT 거래를 위한 전자지갑의 개수가 약 3만 개에서 한 달여 만에 14만 개수로 급증했다[25].

### 2) 국내 NFT 예술시장

이렇게 투자의 목적으로 여러 메타버스 시장이 증가하며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주목되어왔으나 그중에서도 예술 분야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희소성 때문이다. 복제할 수 없는 NFT의 장점과 미술시장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희소성이 결합해 가격책정의 기준에 큰 상승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존에 소위 ‘부자’들의 상징으로만 여겨졌던 예술품의 거래를 모든 이들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미술품 컬렉션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기도 했다[26]. 2021년 마리킴이 출품한 10초짜리 영상인 ‘Missing and Found [그림 11]’는 한국 최초의 NFT 작품이면서도 약 6억 원의 경매가를 기록하며 국내 NFT 예술품 거래의 시작을 알렸다.



그림 11. 마리킴 ‘Missing and Found’ 스틸 샷  
 Figure 11. Still from Marie Kim’s ‘Missing and Found’

또한, 금융과 관련해서 최근 국내 주요은행들은 해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NFT 영역의 수탁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이들의 가상자산 수탁서비스 진출은 관련 기술 기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합작회사를 구성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외와 달리 국내 주요은행들은 NFT 수탁서비스

경쟁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가상화폐에 대한 국내에서의 사회적 논의와 규제가 몇 년간 정비되지 않았던 원인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27]. 이처럼 현재 국내의 NFT 시장은 단순한 예술에 대한 전망이 아닌 투기의 목적을 보유한 경우가 더 크다 할 수 있겠다. 자신이 들인 노력에 비교해 큰 보상을 원하는 이른바 ‘한탕주의’가 사회에 나타나며 도박성을 지닌 거래가 즐비하다는 것이다[28]. 이에 정부는 여러 가지 규제안을 내놓더라도 가상화폐를 정식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를 인정한 순간, 가상화폐 투기를 장려하는 것[29]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 IV. NFT 인식 설문조사 분석

##### 1. 설문조사 개요

본 설문조사는 NFT 예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가치관 등을 조사·분석하여 NFT 예술의 현황 및 미래의 방향성을 알아보려 실시하였다. 2022년 8월에 진행된 마포구 아트센터의 NFT 미술품 전시 방문객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그 중 58명이 미술전공생 또는 관련 전공졸업자이며 36명이 전문가 및 디자인 관련 직종 업무자였다. 조사는 응답자의 수를 단순 비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 NFT 거래경험자 조사

설문조사 결과 약 92.2%(95명)가 NFT를 거래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그림12].



그림 12. NFT 거래 경험  
Figure 12. Experienced NFT trading

이를 통해 설문자 중 대다수가 NFT 거래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현재까지는 흥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NFT 예술에 대한 선호도 조사

그림 13에 나타난 것처럼 NFT 거래 무경험자 중 약 25%(24명)가 NFT가 매우 과대평가되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또한, 그림 14는 NFT 거래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 75%(6명)가 NFT 예술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의견에 동의 또는 매우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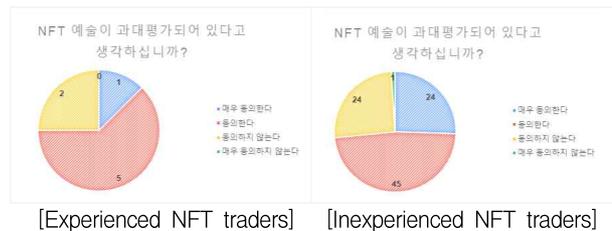


그림 13. NFT 예술에 대한 선호도 조사  
Figure 13. Preference survey for NFT art



그림 14. NFT 작품 선호이유  
Figure 14. Preference on NFT Art

이를 통해 전체 응답자의 약 72%(75명)가 NFT 예술품에 대해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3) NFT 예술 구매에 대한 조사

NFT 예술품에 대해 과도하게 평가되었다고 대답한 다수를 포함한 설문자들이 NFT 예술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약 64%(66명)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긍정적인 반응에 대한 이유는 NFT 기술의 발전 가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제도의 미흡함과 실물의 가치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 또한 다수 존재했다.

###### 4) NFT 예술품과 실물 작품 선호조사

그림 15에서처럼 실물 작품과 NFT 작품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선 NFT 작품을 더 선호한다는 의견이 약 23%(24명)를 차지했고, 실물 작품을

더 선호한다는 의견은 약 76%(79명)로 선호도에 약 3 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실물 작품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원본의 소장가치가 더 높다'라는 의견이 62.5%(50명)로 1위를 차지했고 NFT 기술의 신용도가 낮다는 의견이 2위(7%)였으며 그 외에도 '실물 작품을 만드는 작가의 노력이 더 크다'라거나 '만질 수 있어서' 등 실물로 존재한다는 성질에 초점을 둔 대답이 주를 이뤘다. 반면, NFT 작품을 더 선호하는 응답자 중 약 66%(16명)가 'NFT의 소장가치'를 그 이유로 꼽았고 '투자가치가 높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30%(7명), '기술의 신용이 높아서'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약 4%(1명)를 차지했다.



그림 15. NFT 작품과 실물 작품 선호이유  
 Figure 15. Preference on real Art or NFT Art

### 5) NFT 작품 가격 인식 조사

그림 16은 'NFT 작품 구매에 어느 정도의 지출을 고려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약 46%(48명)가 '50만 원 이하를 낼 용의가 있다.' 대답했고 단 3.8%(4명)만이 '1,000만 원 이상의 지출 의도가 있다'라고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아직 국내의 NFT 작품 선호도는 실물 작품보다 현저히 낮으며 그 원인으로는 기술에 대한 불신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NFT 작품을 예술적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닌 투자상품으로 대하는 시선 또한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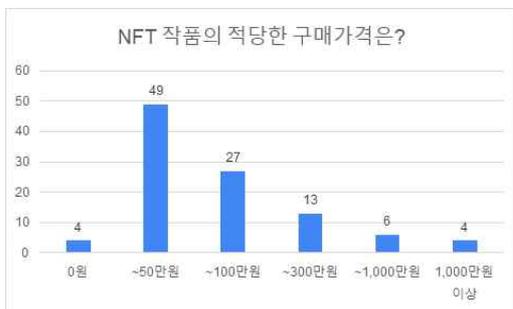


그림 16. NFT 예술 구매에 대한 선호도  
 Figure 16. Preference survey on purchase of an NFT art

## V. 결 론

설문의 결과를 통해 설문에 참여해준 103명의 응답자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 중 대다수가 NFT 예술에 부정적인 인식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 92%의 설문자가 NFT 거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FT 예술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평가하였고 NFT 예술의 가치에 대한 질문에 약 72%가 NFT 예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NFT 작품 인식조사 설문의 결과를 토대로 NFT 예술품의 거래에 익숙한 사람 중 상당수가 예술품의 금전적 가치에 더 집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FT 작품을 실물 작품보다 더 선호한다고 답변한 24명 중 30%가 그 이유를 투자가치로 들었으며 소장가치를 우선으로 꼽았다. 한편, NFT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한 인원은 0명이다.

셋째, NFT 작품을 구매하게 되면 얼마 정도의 금전적 소비를 감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약 46%의 응답자들이 50만 원 이하라고 답변했으며 오직 3.8%만이 1,000만 원 이상 지불할 용의가 있다 대답했다.

본 연구는 현재의 세계 NFT 시장의 동향과 국내시장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설문을 통해 대중들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세계의 NFT 시장은 이미 순수예술을 더불어 음악, 영상 등 다양한 예술작품의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NFT의 예술적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비록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보완이 시급하고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기술의 진보에 따라 해결될 부분이라고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국내의 예술시장 및 전반적인 NFT 시장 또한 이러한 흐름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며 관련 법 제정 및 인식을 개선하여 NFT를 등한시하지 않고 발 빠르게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예술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동향 연구와 국내시장으로의 도입 및 반응 등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이후 전반적인 NFT 작품 및 NFT 예술 산업 연구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 References

- [1] Mieszko Mazur, "Non-Fungible Tokens (NFT). The Analysis of Risk and Return," *IESEG School of Management*, pp. 02, October 2021.
- [2] S.H. Yeon, "NFT, New Technologies to Ensure the Legitimacy of Digital Data," *Korea Today*, June 2022.
- [3] Jazmin Goodwin, "What is an NFT? Non-fungible Tokens Explained," *CNN Business*, November 2021.
- [4] N. Szabo, "Formalizing and Securing Relationships on Public Networks", *First Monday*. September 1997. DOI: <https://doi.org/10.5210/fm.v2i9.548>
- [5] Michael Adams, "Who Is Satoshi Nakamoto?", *Forbes Advisor*, August 2022.
- [6] Jung Hyun Chun, "An IPFS File Access Control System Using Blockchain-based Decentralized Identifiers",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pp. 03, February 2022.
- [7] Muhammad Ashraf Fauzi, Norazha Painman and Zarina Othman, "Bitcoin and Cryptocurrency: Challenges, Opportunities and Future Works",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Vol 7, No 8, July 2020.
- [8] Jose Luis Orihuela, "Blockchain can be the new paradigm of the net", *Towards Data Science*, November 2018.
- [9] Ahmed Abdullah Alijabr, Avinash Sharma and Kailash Kumar, "Mining process in Cryptocurrency Using Blockchain Technology: Bitcoin as a Case Study", *Journal of Computational and Theoretical Nanoscience*, pp. 05, October 2019.
- [10] Yashika Nagpal, "Non-Fungible Tokens (NFT's): The Future of Digital Collectible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Management and Humanities*, Vol 4, No 5, pp. 758 - 767, 2021. DOI: <https://doi.org/10.1000/IJLMH.111984>
- [11] A. Hamilton, "The Beginning of NFTs - A Brief History of NFT Art", *Zeno Fine Art*, March 2022. <https://www.zenofineart.com/blogs/news/the-beginning-of-nfts-a-brief-history-of-nft-art>
- [12] Luka Merville, "The Birth of a New Discipline: The History of NFT Art", *Art Haus*, June 2021.
- [13] Valentina Di Liscia, "First Ever NFT Sells for \$1.4 Million", *Hyperallergic*, June 2021.
- [14] Andrew Steinwold, "What is a Non-Fungible Token (NFT)?", *Zima Red*, March 2020.
- [15] Meghan McDowell, "Gucci goes deeper into the metaverse for next NFT projects", *Vogue Business*, March 2022.
- [16] Jabari Young, "People have spent more than \$230 million buying and trading digital collectibles of NBA highlights", *CNBC Sports*, March 2021.
- [17] M. Nadini, L. Alessandretti and F. Di Giacinto, "Mapping the NFT revolution: market trends, trade networks, and visual features", *Scientific Reports*, Vol 11, No 20902, October 2021. DOI: <https://doi.org/10.1038/s41598-021-00053-8>
- [18] Gareth Jenkinson, "NFT market worth \$231B by 2030? Report projects big growth for sector". *Cointelegraph*, July 2022.
- [19] Christina Criddle, "Banksy art burned, destroyed and sold as token in 'money-making stunt'", *BBC News*, March 2021.
- [20] Nicole Serena Silver, "The History And Future of NFTs", *Forbes*, November 2021.
- [21] Cheong Ghil Kim, "A Study on Technology to Counter Copyright Infringement According to NFT Transaction Types",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Namseoul University*, pp. 04, December 2021.
- [22] S.A. Kwon, "From Mt. Gox... The winding history of the Cryptocurrency exchange". *The JoongAng*, April 2020.
- [23] Tae Hyup Roh, "Digital Transformation and Introduction of NFT in the Art Marke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8, No 01, pp. 261-269, January 2022. DOI: <https://doi.org/10.17703/JCCT.2022.8.1.261>
- [24] D.W. Kim, "Number of NFT-related books overwhelming, approaching to the year's end", *Han Kyung Lié*, December 2021.
- [25] D.H. Kim, "NFT Recent Industry Trends and Implications", *Institute for Information &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IITP)*, Vol 219, July 2022.
- [26] J.M. Seo and Y.J. Oh, "[The era of 1 trillion in the Korean art market] NFT art without registration and purchase restrictions will grow more than 100 times in 10 years", *The Joong Ang*, March 2022.
- [27] K.S. Le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NFT". *Korean Society of Law*, Current Issues Report, Vol 2022, No 01, pp. 19-20, April 2022.
- [28] H.J. Ryu, "Stocks by day, coins by night. Youth addicted to 'hantang' has increased", *Kyong Buk Daily*, April 2021.
- [29] S.M. Yu, "Cryptocurrency craze, the reason?", *The Science Times*, Dec 2017.